

경쟁보다 진심을 노래하다

SBS 음악 오디션 '우리들의 발라드'

글. 조형곤 SBS A&T 방송기술팀 음향감독



방송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그 시절 너와 나의 노래!

음악 전문가부터 일반 남녀노소까지 150명의 '탐백귀 대표단'이 대중픽 감별사로 나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집단 지성 음악 서바이벌 오디션!

음악으로 시작된 감동의 무대



수많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관객의 환호와 점수로 긴장감을 만든다면, SBS <우리들의 발라드>는 시작부터 결이 달랐다. '내 인생의 첫 발라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무대에서 평균 나이 18.2세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삶이 담긴 노래를 담담하게 불러 내려갔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 그들에게서 재해석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순간 음악은 단순한 경연이 아닌 공감의 대화가 되었다.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천범석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이예지

점수가 아닌 공감으로 평가되는 시간



대부분의 경연 프로그램이 심사와 경쟁으로 긴장감을 쌓아 올린다면, 우리들의 발라드는 점수가 아닌 공감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오디션의 전문가 심사단과 달리, 우리들의 발라드는 일반 대중의 감성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하기 위해 150명 규모의 일반 시청자·음악 애호가로 구성된 대중 평가단 '탑백귀'(Top 100耳)와 함께 무대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며 참가자의 진심, 감정 전달력, 공감도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긴다.

심사위원 크러쉬는 "목소리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평했고, 정재형은 "노래가 내게 이야기를 건네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최은빈



<우리들의 발라드> 탑백귀 전현무

"같은 노래를 듣고도 다른 감정을 느낀다.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차별점."

- 전현무

무대 위의 참가자들이 화려한 기교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부를 때, 참가자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로 바라보며 성장해 갔으며 관객은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라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이야기의 동반자**가 되었다.

진심이 만든 감동의 순간



화려한 무대 연출이나 과한 연기 없이 오롯이 목소리 하나로 감동을 전달하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이별을, 또 다른 이는 상처의 시간을 노래하며 스스로를 치유했다. 어두운 무대 위를 밝히는 참가자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심사평조차 눈물이 맺히던 장면들, 그것은 완벽한 고음 때문이 아니라 삶이 묻은 한 구절의 진정성 때문이었다.



<우리들의 발라드> 탐백귀 차태현



<우리들의 발라드> 탐백귀 박경림

“최종한데 옥떡을 각오를 하고 말하겠다. 이 무대는, 그냥 좋았다.”

- 차태현

세대를 잇는 발라드의 부활



최근 음악 프로그램들이 빠른 박자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끈다면, <우리들의 발라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었던 발라드가 '이야기 음악'으로 새롭게 다가왔고, 중장년층에게는 잊고 있던 추억의 노래들이 다시금 위로의 선물로 되살아났다. 발라드라는 장르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야기와 진심이 전해지며 세대와 감성을 잇는 음악의 통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김민아&탐백귀 정재형

젊은 시청자들은 부모 세대의 노래를 통해 그들의 청춘을 이해하게 되었고, 중장년층은 새로운 세대가 부르는 목소리 속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는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사실이 화면 너머로 오롯이 전해졌다.

진심으로 노래한 그대들에게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12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가 끝난 후.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던 참가자들, 그들의 노래는 단지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노래의 힘은 경쟁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을 건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그 이름처럼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길 바라며 진심으로 노래한 모든 참가자와 그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담아낸 스태프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